

민생현장 속 소통행정 '호응'

정현을 익산시장, 29개 읍면동 5000여명 주민과 직접 만나 소통 이어가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버스를 타고 민생현장을 누빈 '우리동네 행복버스'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민생 행보의 핵심 키워드는 '경청과 소통, 공감'이다. 정 시장은 업무 복귀 직후 지난 2개월간 29개 읍면동 주민 5천여명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를 지켰다.

지난해 진행된 '1일 읍면동장제'와 달리 민생현장, 버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격의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갔다.

익산 최초 3선 시장으로 취임한 정 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일환으로 민선 8기 익산의 4대 비전인 국제철도 도시, 녹색정원 도시, 바이오산업 도시, 역사문화관광 도시를 어떻게 구현해갈지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도시공원과 명품아파트 조성, 지역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방침이다.

또한 정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시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지역 곳곳에서 600여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도로와 농로포장, 주차장 확충, 경로당 기능보강, 하수도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정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경청하며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횡등 육교 설치, 터질목 대간선수로 복개 등 사업주체가 시가 아닌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민원해결사의 면모를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각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시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읍면동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익산, 꽃으로 피우다'라는 주제로 왕도정원 시민제안공모를 진행한다.

'익산, 꽃으로 피우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왕도정원 시민제안공모 진행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익산, 꽃으로 피우다'라는 주제로 왕도정원 시민제안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마을이나 주택이 주변 유휴공간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자투리 공간에 시민이 직접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지역은 정원가꾸기 활동이 가능한 5인 이상의 시민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개의 시민공동체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선정된 시민공동체팀에게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자문과 가드닝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정원 유형은 ▲정원을 매개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문화 활동이 가능한 마을정원 ▲마을을 진입로 또는 주택 주변을 꽃밭이나 꽃길로 조성하는 꽃길(꽃밭)정원 ▲자투리 공간이나 리뉴얼이 필요한 공공공간을 활용한 한뼘 정원 ▲10인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사무공간이나 학교 교실, 공동체 정원 등이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뜨거운 여름은 안녕~ 알아볼래 섬?"

군산시, 섬의 날 행사 '2일차'

행사 이틀째를 맞이한 9일 무더운 날씨에도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선유도 행사장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섬을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 행안부·해수부 등에서 마련한 정책관, 섬 지역 광역·기초단체가 준비한 시도관 등의 부스를 7일간 운영한다.



행사 이틀째를 맞이한 9일 무더운 날씨에도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선유도 행사장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체험과 AR체험을 즐길 수 있고, 프리마켓이 조성되어 온 세대가 즐길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섬 발전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열려 36개의 섬 발전사업 담

당자 90여명이 모였다. 담당자들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으며,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실장,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행안부 정태욱 섬발전팀장의 강연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강소농' 역량강화 심화교육 실시

익산시가 농업경영 역량 강화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강소농 육성에 집중한다.

시는 이달 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규모 경영체지만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역량강화 교육으로 총 10회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상반기 경영개선교육 이수자들로 경영역량 강화 심화교육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생들은 지난 4월에서 7월 까지 농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농가 방문 현장 크로스코칭 등 경영개선 교육을 마치고 직접 개발한 비즈니스모델과 농업 생산품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등 수준 높은 경영 기량을 과시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니어클럽·효림복지센터,인센티브 지급 선정

군산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군산시니어클럽과 효림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기반조성 및 노인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21년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총 182개 기관을 선정, 유형별·등급에 따라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두 기관은 21년 56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해 4,19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사업추진 실적·사업평가실적 및 비계량 정성평가의 심사를 거쳐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선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노인일자리 운영과 신규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집 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

군산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분과별 이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심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교육이다.

군산어린이공영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161개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 의무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강민숙 관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강민숙 관장은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경기한 사안이라도 경각심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여의도 55배면적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실시

익산시는 약제 적기 방제를 통해 병해충 피해 최소화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벼 병해충 중점 방제 기간에 맞춰 여의도 면적(290ha) 55배에 달하는 1만6,000여ha 규모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여 벼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가 방제와 농협 위탁 항공방제 지원을 통해 7,000여 농가가 동시에 집중 방제에 돌입했다.

이는 올여름 비가 적고 이른 더위로 인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점나방, 이화명나방의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하여 병해충 사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통해 농가 지도와 현수막 게시, 문자발송을 통해 공동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